

광주·대구 군공항 이전 특별법 2월 동시 통과 속도

여·야·정부 간담회서 신속 처리 '한 뜻'...법안은 각각 개별로 '기부대 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에타 면제 등 정부도 공감대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 관련 법안을 2월 임시회에서 대구군공항 이전 법안과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해 정부 추과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군공항 이전 과정에 정부의 추가 지원 속도가 기대되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구갑)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2월 임시회에서 동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법안의 쟁점 사항을 점검 및 조율했다. 송 의원은 "군공항 이전사업 시 '기부대 양여' 부

족분에 대해 국가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에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기재위 소속 김상훈 의원, 국토위 소속 강대식 의원, 국방위 소속 임병헌 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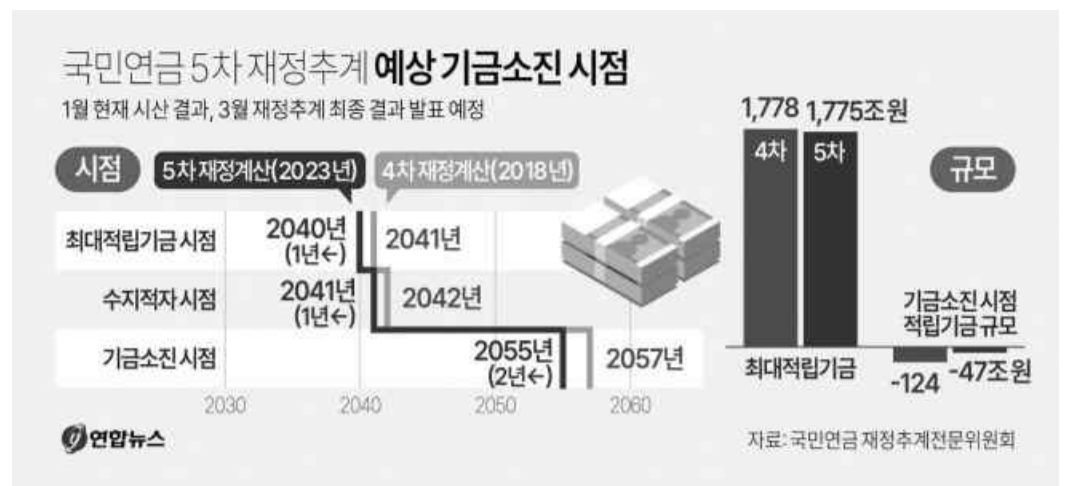
이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과 관련 정부와 여야 정치권,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항 이전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정부의 '국고' 지원에 대해 기재부의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취재진을 만

나 "법안 심사를 하게 되면 정부측 의견도 듣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국방부 장관과 경제부총리를 모셔서 중요한 조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원칙은 군공항 이전에 관한 법의 조문들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구군공항, 광주군공항이 이전하면서 수월하게 하는 장치들이 있다면 같이 해야 하고, 특별히 더 유리하게든 불리하게든 해선 안된다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한 두 특별법을 조속히 국회 통과시키기 위해 모은 한편 통합 법안이 아닌 개별 법안 동시 통과에 한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군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각각 법안으로 가는 것이 더욱 더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당연히 통합해 심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TK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특별법(각각) 가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일치"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55년 국민연금 고갈...2년 더 빨라져

2041년 적자 전환...복지부 10월까지 개혁안 마련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직전 추계보다도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지난 27일 이같은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2003년 이후 5년 주기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제5차 결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20조원(2022년 11월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듬해부터는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55년에는 소진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 시점에서 47조원의 기금 적자가 예상된다.

적정인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778조원에서 다소 줄었다.

이러한 재정추계는 인구와 경제, 제도 변수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인데,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산·고령화는 심화되고 경제성장을 등거시경제 여건은 더 악화해 연금 재정 전망도 더 어두워졌다.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하며,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자유'...대중교통·의료기관은 '착용'

학교·대형마트 등 대부분 시설 혼선우려 '착용의무시설' 안내

오늘부터 병원,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 등 실내 대부분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코로나19 감소세가 뚜렷한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규제'보다는 개인 선택의 영역인 권고 조치로 바꾼 것이다.

다만 당분간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반드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 같은 일부 예외 장소 때문에 초기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숙지를 당부하고 있다.

방역 당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인 만큼 해당 기관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반면 병원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



29일 오후 광주 동구 문화전당역에 대중교통수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다는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일단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방역 당국은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집·밀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조치에 따라 대중교통 등 일부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게 됐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국,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1000평 이상. 010-9582-7400

전남 토지 면적 축구장 224개만큼 늘었다

1.6km² 증가한 1만2361km²

2022년 말 기준 전남의 토지 면적이 1만2361km²로, 전년보다 축구장의 224배에 달하는 1.6km²가 늘었다. 이를 평균 개별공시지가(1만3193원/㎡)로 환산하면 211억 원 규모다.

이처럼 토지 면적이 늘어난 것은 무안 남악신도시 옹거시 우곡지 택지개발사업지구 6-2단계 0.55km², 보성 무주부동신 0.49km², 여수 거문도항 정비 0.56km² 등이 신규 등록됐기 때문이다.

시·군별 토지 면적은 해남이 1044km²로 가장 넓고, 다음으로 순천 911km², 고흥 807.4km², 화순 787km², 보성 664.6km² 순이다. 필지 수는 해남 44만4000필지, 고흥 40만7000필지, 나주 39만2000필지 순이다. 토지 이용 현황은 임야가 56.1%(6939km²)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지는 25.7%(3174km²)로 나타났다. 이어 도로 3.7%(462km²),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 대

2.5%(315km²), 유지 등 기타가 12%(1471km²)를 차지했다. 농지와 임야가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비중이 줄어든 반면 건축사업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도로, 대, 공장용지 등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전남의 토지 면적은 전 국토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지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면적은 경북과 강원도에 이어 세 번째로 넓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엔 확정된 면적은 2월 중 국토교통부 검증 과정을 거쳐 지적통계 연보에 수록될 예정이다. 토지 관련 각종 통계는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을 통해 공개한다.

김승태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통계는 각종 토지 관련 정책 수립, 조세 부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며 "정부 교부금 산정의 산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좌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임시총회소집공고(2차)

창원황서 서담공파연은 돌산분중은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소집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3. 2. 11. (토요일) 12:00
2. 장 소 : 전남 여수시 망양로 20(역중동, 스테이 더 밀라티 여수점)
3. 안 건 ① 문중 대표자(회장) 선임의 건
② 문중 규약 개정의 건
③ 황치순이 문중의 대표자로서, ④ 김진준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가단73031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사건(항소심 : 광주지방법원 2022나67936호), ⑤ 이미진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가단86730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사건, ⑥ 김진준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가합1145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사건(위 사건의 결정에 대한 2021카합1269호 가처분이의 사건, 위 가처분이의 사건의 결정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2022라1103호 항고 사건의 소 또는 신청제기에 관한 추인의 건
⑦ 위 ③의 소 또는 신청의 제기(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행위포함에 관한 대표자 선임의 건
⑧ 위 ④의 소송 또는 신청의 제기(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행위포함에 관한 대표자 선임의 건

※ 문중 규약 제5조(회원 자격) 제1항은 "본 문중의 회원은 창원황서 서담공파연은 돌산분중의 후손으로서 20대, 21대손으로 돌산분이나 여수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문중 회원이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라도 회원의 의무를 다하면서 회원으로 소속되길 희망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지역으로 이주한 분 중 회원으로 소속되길 희망하시는 분은 위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회원명부에 등재하고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30.

소집공고인 창원황서 서담공파연은 돌산분중 대표자 회장 고문(고고환총자) 총무 문중원	황 치 순 황 봉 석 황 태 식 황 표 성
---	----------------------------------

자본감소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3년 01월 26일 총주주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을 금 200,000,000원 중 금 80,000,000원을 감소한 금 12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 10,000원의 주식 8,000주를 회사와 주주들간의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매입하여 임의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발행주식 총수 20,000주를 12,000주(금 120,000,000원)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위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본 회사에 제출할 것과, 구 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의 일일부터 1개월 이내 구 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할 것 등을 이에 공고 및 최고함.

2023년 1월 30일
주식회사 금강이앤지
광주광역시 서구 문천로 204번길 10, 3층 (영촌동, 금호빌딩)
대표이사 강우구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동만(620527-XXXXXX)
- 최후주소 :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537 (대곡리)
- 등속기준지 : 전남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570
- 피상속인 망 김동만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2나단121호로 신청하여 2023년 1월 1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승속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1월 30일
- 상속인 : 김이슬(880916-XXXXXX)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59번길 51-3, 202호(가흥리, 청해파크빌)
- 신고기간 : 2023. 1. 30. ~ 2023. 4. 11.
- 채권신고처 : 상속인 김이슬의 주소

김림업 양도양수공고

주식회사 김림업(이명(대표자)박정길, 최국선)는 주식회사 천영기술(대표자)김진영에게 천영기술의 공사관리업 양도하기 위하여 천영기술법원 제16호 9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의 제2항에 의거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 -

1. 양도대상 : 천영기술(주)공사관리업 전량(계정총합-22호)
2. 양도예행일 : 2023년 01월 31일
3. 양도자 상호 : 주식회사 김림업(이명)
대표 : 박정길, 최국선
주소 : 전남남도 곡성군 김면 곡서로 1960 (삼별 남양리 247)
4. 양수자 상호 : 주식회사 천영기술
대표 : 김선영
주소 : 전남남도 화순군 도곡면 지석로 1202-14
전화 : 0704276-0882

2023년 1월 30일
양도자 : 주식회사 김림업(이명) 대표 박정길, 최국선

산행안내

2월4일(토)

▲ 광주호신회 2월4일(토) (제64차) 정기산행 고분 연승 도지봉(은대산) 아리다운산 트레킹후 생태숲 트레킹 오전 06시 30분 용암동 롯데마트 주차장출발 07시 롯데배달점 07시15분 예송회관출발 ☎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

산행안내

2월5일(일)

▲ 광주호신회 2월5일(일) <리리산 천원봉 눈꽃산행(중산리-천원봉-백무동)> 오전 06시 50분 비엔날레주차장전면 출발 ☎ 010-3635-1707

구독문의

신문 220-0551
예향 220-0550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2796000